

藥品과 市場과 原價

—藥價는 市場能力이 左右—

프레드니손은 코티손의 誘導體인데 老弱者들의 慢性關節炎 治療劑로서 美國의 델크會社가 디카드론으로, 세링會社는 디로닐이란 商標를 各各 붙여서 各社가 各各이 팔고 있을때의 일이다.

디크사메타손은 그 7분의1 含量으로서 프레드니손과 同一한 生理學的 作用과 副作用을 이룰수 있다. 또한 디카드론이나 디로닐의 0.75mg의 錠劑는 메티콜틴의 5mg錠劑와 同一價格으로 藥房등에서 팔리고 있었다.

한편 메티콜틴은 同種藥効藥으로 美國內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商標名으로서 세링이 팔고 있었다.

이같은 施藥販賣가 市場獨占이란 理由로 美上院에서 問題가 되어 公聽會가 열렸다. 그러나 市場을 毒점한다해도 患者數나 病床數가 增加하지 않는다면 問題가 되지 않는다. 또 研究가 進行되어 原價가 節減된다해도 販賣量이 늘지 않으므로 販賣藥價를 引下할수는 없는 것이 常論이었다.

이러한 商況인 만큼 이때의 公聽會에서 毒점에 대한 세링會社長의 答辯內容이 傑作이다. 그 要旨인즉...

「약을 판다는 것은 清涼飲料水나 自動車를 파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公衆은 製藥産業의 應用研究에 의해 利益을 보지는 못한다. 또 或種의 基準特許製品販賣價格이 原料의 原價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市場의 負擔能力에 따라 決定되는 법이다. 醫藥分野에서 10배의 效果가 있고 더욱이 원가가 1錠當10분의 1이란 新製品을 내놓는다면 그것이 萬若 이미 市場에 出廻하고 있는 商品販賣價格의 10분의 1로 줄이면 醫藥業者는 完全히 自己市場을 減縮시키는 結果가 되어 從前 販賣量의 10분의 1로 切下한 셈이 된다.

현재 市場에서 自然的인 毒점이 進行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같은 일은 企業人이 할일이 못된다. 그것은 眞實한 競爭이 시작되었을 때에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고 한 것이다. ♣

商號·商標에 대한 雅量

—맥司令官이 日財閥살려—

商標가 企業의 存廢를 左右할수 있음은 過去の 實例가 無數히 立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日本이 2次大戰 敗戰後 商號나 商標가 各各 企業에 얼마나 큰 影響을 미쳤나를 實證하기 전에 그들의 상호, 商標를 保護하기 위하여 어떠한 政治的演劇을 썼는가를 알면 그 深刻性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終戰後 맥아더司令官은 軍閥을 覆받침한 財閥들을 解體시키는 한편 1948年 8月 指命으로서 各各 企業의 상호, 商標도 다음해 1월에 政令으로서 使用을 禁止시키려 했다.

當時의 各各로서는 致命的인 災難이 아닐수 없었다. 따라서 三井, 三菱, 住友 등의 社名과 關聯商標의 一部가 1951年 7月 以後 7年間 使用이 금지될 運命에 놓였다. 商號나 商標가 7년동안이나 사용금지 되면 商標制度上 큰 打撃이 아닐수 없었다.

여기서 各各가운데 三井 8社, 住友 3社, 三菱 7社는 서로 內通合心하여 그 당시의 吉田總理에 呼訴하였다. 이때의 호소이유는 「재벌해체는 이미 끝났으며 株式는 民主化되었다.

財閥本社は 解散하고 財産도 거의 處分되었으므로 再生할수는 없다. 상호, 商標를 變更하려면 적어도 10數億圓의 費用이 들게된다. 間接損害까지 합치면 그 10數倍에 이를 것이다. 그 손해는 株式가 民主化된 오늘에는 一般株主가 負擔하게 된다」는 要旨였다.

吉田은 여러모로 活動을 展開하여 맥아더司令官에 懇曲히 提請함으로써 政令의 施行期日을 此日 彼日 延期하는데 成功하여 1952년 4월의 講和條約 發効와 더불어 政令을 廢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財閥企業들의 상호, 商標의 舉國의 國防衛作戰이 奏効한 셈이다. ♣

☆ ☆